

Car Tuning & sports

MITSUBISHI
LANCIA DELTA S4

새로 바뀐 F1 규정
일본의 아마추어 모터스포츠 문화
경주차 연료의 최고 조건은 엔진 성능 극대화

JBT
BRAKE SYSTEM

온가족이 모여 웃놀이 하던 시대는 갔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인, 가우디의 나라 스페인
실화보다 더 진짜 같은 이야기
해외에서도 시작되는 걸 파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Auto Salon 2011
Tokyo

독아청청 마르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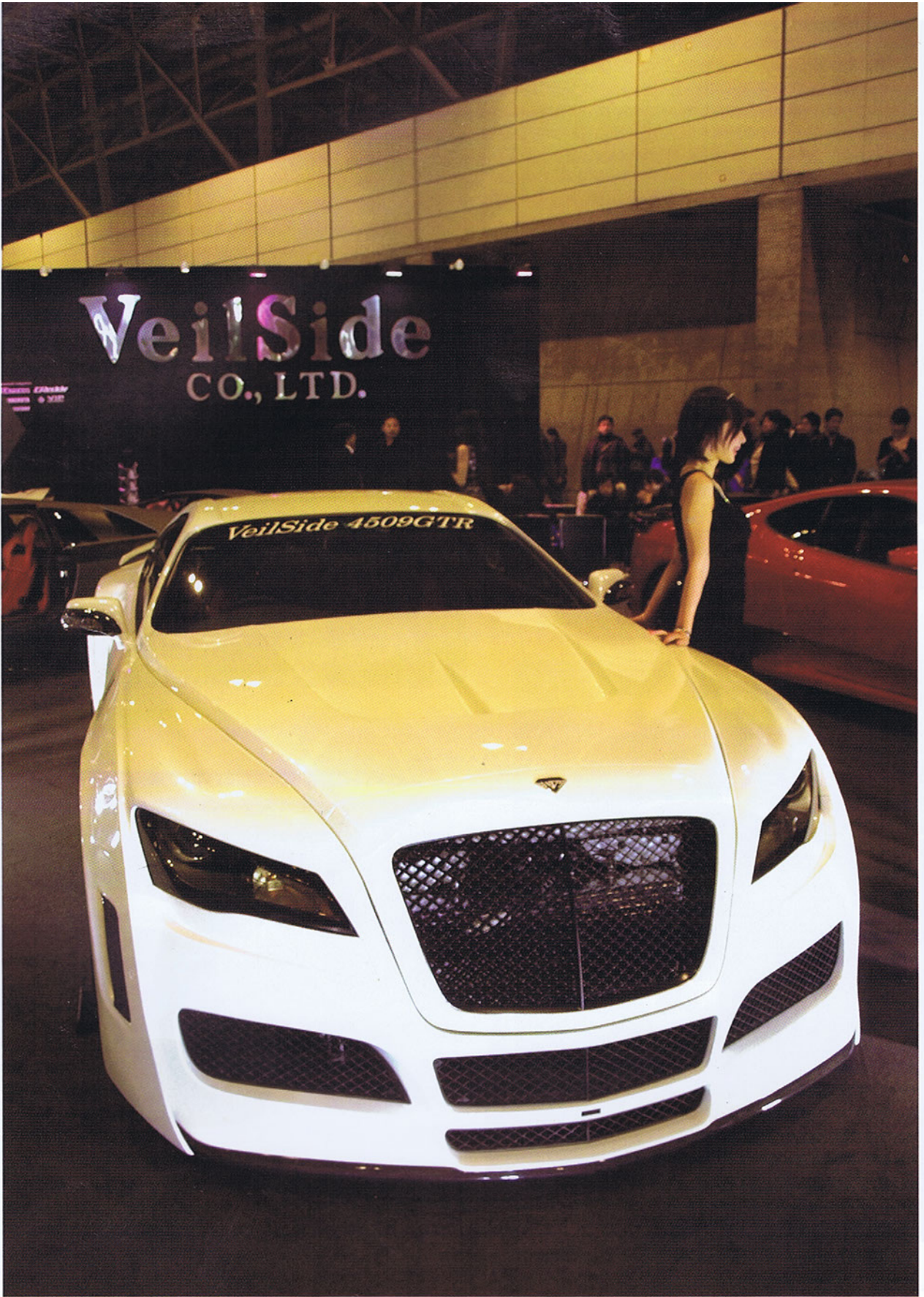
베일사이드 비주얼 황제의 재림
이제 튜닝은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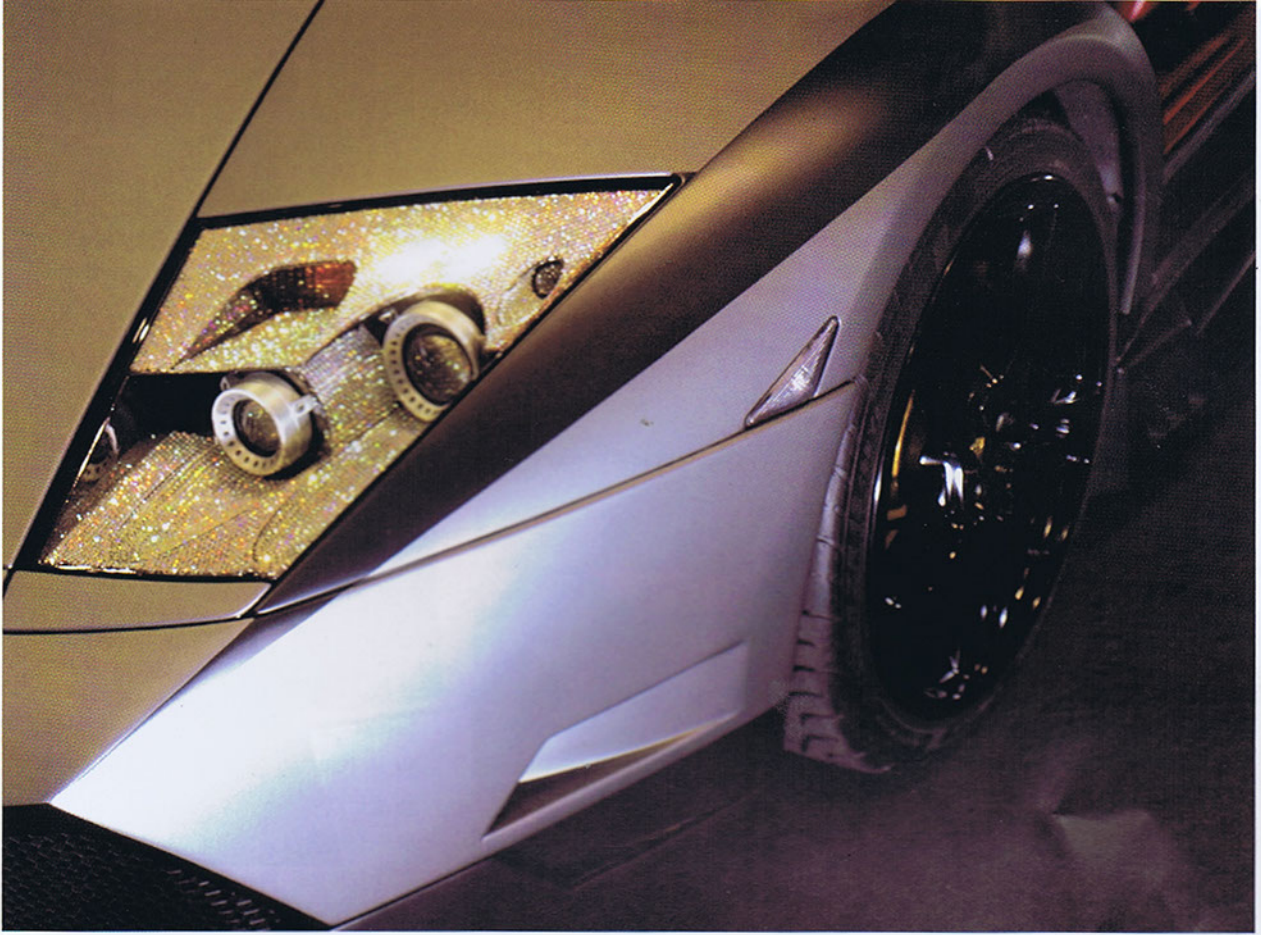
THE ORIGINAL RETURN
유료 웹 콘텐츠로 거듭나는 잡지

PICO SOUND
Exhaust system

2011

02





VeilSide

in Tokyo Autosalon

비주얼 황제의 재림





VEILSIDE
 BENTLEY
 Continental GT
 Ferrari
 F430
 F360
 ASTON MARTIN
 Vantera
 PORSCHE
 Panamera



Continental GT
 (Limited edition 300 sets)
 - kit include as follow -
 Front bumper
 Side skirts
 Rear bumper
 Rear spoiler
 Optional products:
 Rear wing
 PL-V wheels
 Front: 22 x 9.5J +32 5x112



VEILSIDE
 BENTLEY
 Continental GT
 Ferrari
 F430
 F360
 ASTON MARTIN
 Vantera
 PORSCHE
 Panamera



LP640
 (Limited edition 300 sets)
 - kit include as follow -
 Front bumper
 Side fin replacement
 Rear bumper & Rear spoiler
 Optional products:
 Rear wing
 Scaff plate(silver or black carbon)
 PL-V wheels
 Front: 19 x 8.5J +58 5x120



PREMIER
4509 LIMITED

Complete Car Dealer
VeilSide NAGOYA

PREMIER 4509 Japan Distributor
ROBERUTA

PREMIER 4509 California Distributor
PLATINUM MOTORSPORT



최고의 모습을 컨셉트로 지향하는 일본의 드레스업 튜닝의 전설적인 튜너 베일사이드가 오랜 준비기간을 가지고 극비리에 제작한 드레스업카와 컴플리트카를 도쿄 오토살롱에서 공개했다.

베일사이드가 6년만에 도쿄오토살롱에 나타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유는 수프라와 스카이라인 등의 일본 스포츠카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 드래그레이싱 마니아라면 누구나 관심 가졌던 가장 화려한 드레스업 파츠를 제작해왔었고, 영화 '분노의 질주', '와일드스피드' 등에 등장하는 메인카를 제작하는 등의 이색적인 홍보를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내에서도 손꼽히는 드레스업 파츠 메이커가 다시 부활하는 장으로 도쿄오토살롱을 택한 셈이다. 토요타 IQ와 벤틀리 컨티넨탈 GT,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페라리 430 등의 컴팩트카, 렉서리카, 수퍼카 등 다양한 모델의 베일사이드 에어로 보디킷을 선보였다. 공기의 흐름과 동적인 디자인을 최대화 시키는 베일사이드 특유의 개성적인 디자인은 보여주는 디자인과 사용하는 디자인을 함께 고려하는 진보된 방식을 추구한다.

특히 행사장에서 진행된 도쿄 국제 커스텀 카 콘테스트에 우승을 거머쥔 베일사이드 4509GTR은 기존의 양산되었던 자동차를 베이스로 제작되어 벤틀리의 느낌이 나는 대형 그릴과 샤프한 헤드라이트, 와일드하게 휠과 타이어를 감아쥐고 이어가는 펜더 등의 스포츠카와 렉서리카가 조합된 새로운 커스텀카로 만들어냈다.

기존에 있는 기술과 자동차를 활용하지만 완전한 새로운 모습과 가치를 만들어 내는 베일사이드는 화려한 보디킷과 고급스러운 커스텀 휠, 머플러, 악세서리까지 특유의 느낌을 담아 출시할 예정이고, 한국에서도 정식 에이전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고가사양의 제품을 앞세워 옛 영광을 재현하려는 베일사이드가 오랜시간 침묵에서 벗어나 일본에서 주목을 받았듯이 국내의 에어로파츠 튜너들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만한 일이다. ✎

글 | 이훈

